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호【루게 제25875호】주제107(2018)년 1월 1일(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일편단심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신년사는 김정은

사랑하는 온 나라 인민들과 영웅한 인민군장병들!
동포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모두는 근면하고 보람찬 로동으로, 성실한
담과 노력으로 지나간 한해에 자신들이 이루어놓은
자랑스러운 일들을 커다란 기쁨과 자부심속에 감회깊이
추억하며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안고 새해 2018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온 나라 가정의
진강과 행복, 성과와 번영을 축원하며 우리 어린이들의
새해의 소원과 우리 인민모두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지들!
겉쌓이는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당을
믿고 따르는 강직한 인민의 진정어린 모습에서 큰 힘과
지혜를 얻으며 조국번영의 전군길을 힘차게 달려온
지난 한해들 돌이켜보면서 나는 얼마나 위대한 인민과
함께 혁명을 하고있는가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뜨거워
집니다.

나는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의 나날에 뜻과 마음
을 같이하며 당의 결심을 지지하고 받들어 반만년민족사
에 특기할 기적적승리를 안아온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충심
으로 되는 감사와 새해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나는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남녘의 겨레
들과 해외동포들, 친박전정을 반대하고 우리의 정의의
위업에 굳은 편대성을 보내준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벗들
에게 새해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
2017년은 자력자강의 동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사에
불멸의 이정표를 세운 영웅적투쟁과 위대한 승리의 해였
습니다.

지난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고립압살
책동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우리 혁명은 류폐없는 엄혹한
도전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조성된 정세와 전전도상에
가르놓인 최악의 난관속에서 우리 당은 인민을 믿고 인민
은 당을 결사옹위하여 역경을 순경으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의 장엄한 투쟁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사회주의
한길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려는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사회주의조선의 일심
단결을 내외에 힘있게 표시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핵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을 성취한것입니다.
바로 1년전 나는 이 자리에서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대륙간탄도로켓시험발사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서 추진
되고있다는것을 공표하였으며 지난 한해동안 그 리행을
위한 여러차례의 시험발사들을 안전하고 무명하게 진행하여
확고한 성공을 온 세상에 증명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각종 핵운반수단과 함께 초강력열핵무
기시험도 단행함으로써 우리의 총적지향과 전략적목표를
성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으며 우리 공화국은 마침
내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억제력을 보유하게 되었습
니다.

우리 국가의 핵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위협도 분쇄하
고 대응할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됩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
오지 못합니다.

미국본토전역이 우리의 핵력격사경전안에 있으며 핵탄
추가 내 사무실책상위에 항상 놓여있다는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뚜렷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지켜낼수 있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넉넉을
풀어드려였으며 전체 인민이 장구한 세월 허리띠를 조이
며 바라던 평화수호의 강력한 보증을 틀어주었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는 당의 병진로선과 과학중시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이며 부강조국건설의
확고한 전방을 열어놓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을 안겨준 역사적장거입니다.

나는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의 어려운 생활속에
서도 우리 당의 병진로선을 굳게 믿고 절대적으로 지지해
주고 힘있게 떠밀어준 영웅적조선인민에게 송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과학적이고 진리이며
실천이라는것을 세계앞에 증명하기 위하여 온 한해 헌신
분투한 우리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에게 뜨거운
총지적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우리 식의 산소열병용광
로가 일떠서 무연탄으로 신철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되었으며 화학공업의 자립적태도를 강화하고 5개년
전략의 화학교지를 집행할수 있는 전방을 열어놓았습
니다.

방직공업, 신발과 편직, 식료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문
의 많은 공장들에서 주체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의 기
술, 우리의 살비로 여러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벌려
인민소비품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고 제품의
질을 높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지역경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과학기
술에 의거하여 땅이 제시한 새해의 트랙트르와 화물자동차
차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와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더욱 힘있
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농업
부문에서 과학농법을 적극 받아들여 불리한 기후조건에서
도 다수확농장과 작업반대별을 높이고 벼년에 보기 드문
과일풍작을 안아왔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웅장화려한 렬명거리와 대규모의
새로지구 축산기지를 일떠세우고 산림복구전투 1단계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군민대단결의 위력과 사회주의자립
경제의 잠재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신 김 은 사 년 정 은 사

1 번 에 서 계 속

만리마속도창조를 위한 벽찬 투쟁속에서 새로운 전향단위들이 편이 태어났으며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연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최고 생산선도수준을 돌파하는 자랑을 떨치었습니다.

지난해에 과학문화전선에서도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고 첨단분야의 연구과제들을 완성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였습니다. 사회주의교육체계가 더욱 완비되고 교육환경이 보다 개선되었으며 의료봉사조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온 나라를 혁명적광명과 전투적기백으로 불꽃처럼 에둘러놓은 본보기가 창조되고 우리의 체육인들이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우승을 쟁취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혁명노선의 승리이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입니다.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제재봉쇄작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남들이 업두도 내지 못할 빛나는 승리를 달성한 바로 여기에 우리 당과 인민의 존엄이 있고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해의 사면적인 나날들에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하고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헤쳐 사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전제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올해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일흔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 우리 국가를 세대가 공인하는 전략적가치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 세운 위대한 인민이 자기 국가의 창건 일흔돌을 성대히 기념하게 되는것은 참으로 의의깊은 일입니다.

우리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빛나는 영웅적투쟁과 집단적혁신의 전통을 이어 혁명의 최후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된, 계속전진해나가야 합니다. 공화국력투쟁건설에서 이룩한 역사적승리를 새로운 발전의 도약대로 삼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나가야 합니다.

《혁명적인 총공세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자!》 이것이 우리가 불고나가야 할 혁명적구호입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전후 천리마대고조로 난국을 뚫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킨것처럼 전진적인 총공세를 벌려 최후발악하는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짓부시고 공화국의 전반적국력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올려세워야 합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면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합니다.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가 제시한 혁명적대동적의 요구대로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것입니다.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자립적동력기지를 정비보강하고 새로운 동력자원개발에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불리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전력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도들에서 자기 지방의 특성에 맞는 전력생산기지를 일떠세우며 이미 건설된 증수형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 지방공업부문의 전력을 자체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국각적인 교차생산조치를 짜고들며 전력망비전상파의 투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편리방안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적인 제철, 제강기술을 더욱 완성하고 철생산능력을 확장하며 금속재료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인민경제의 철강재수요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 필요한 전력, 열정량, 무연탄, 갈탄, 화차와 기관차, 자급을 다른 부문에 앞세워 계획대로 어김없이 보장하여 다음에 철강재 생산물량을 무조건 수행하며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기어 완성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 탄소하나화합물공업시설을 다그치고 촉매생산기지와 린비로공정시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며 회광초를 출발전료로 하는 탄산소다생산공정을 개편완비하여야 합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급속트랙도르공장과 승리자동차련합기업을 비롯한 기계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세계적수준의 기계제품들을 우리 식으로 개발생산하

여야 합니다. 나라의 자립적경제토대가 온을 낼수 있게 석탄과 광물생산, 철도수송에서 현대적혁신을 일으켜야 합니다.

특히 철도수송부문에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과학화, 합리화하여 현존수송능력을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하며 철도에 군대와 같은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 열차의 무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경공업공정들의 설비와 생산공정을 로력절약형,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고 국내원료와 자재로 다양하고 질 좋은 소비제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며 도, 시, 군들에서 자체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지방제품을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합니다.

농업과 수산전선에서 양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를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알곡생산물량을 반드시 집명하며 수산물과 과일, 온실남새와 버섯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배우이와 배수리 능력을 높이고 과학적인 어르전을 전개하며 양어와 양식을 활성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군인이 힘을 합쳐 원산갈마해안방위지구건설을 최단기간내에 완공하고 삼지연군구리기와 단천발전소건설, 황해남도물길 2단계 공사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치며 살림집건설에 계속 힘을 넣어야 합니다.

산림복구투쟁성과를 더욱 확대하면서 이미 조성된 산림에 대한 보호관리를 잘하는것과 함께 도로의 기술상태를 개선하고 강화원정리를 정상화하며 환경보호사업을 과학적으로,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자체의 기술력량과 경제집적력을 총동원하고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더 많은 물질적재부를 창조하여야 합니다.

자립경제발전의 지름길은 과학기술을 앞세우고 경제작전과 지휘를 혁신하는데 있습니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우리 식의 주체적인 생산공정들을 확립하고 원료와 자재, 설비를 국산화하며 자립적경제구조를 완비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과학기술보급사업을 강화하며 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상성에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나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판들은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작전안을 현실성있게 세우며 그 집행을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완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공장, 기업소, 협동단체들에서 실시 온을 낼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회주의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교원전열을 강화하고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며 의료봉사사업에서 인민성을 철저히 구현하고 의료설비와 기구, 여러가지 의약품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경기전법을 창조하며 만리마시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투쟁과 생활, 아담하고 승고한 인간미를 진실하게 반영한 명작들을 창작창조하여 혁명적인 사회주의문화예술의 힘으로 부르조이반동문화물질을 날려버려야 하겠습니다.

전사적으로 도덕기강을 바로세우고 사회주의생활양식을 확립하며 온갖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려 모든 사람들이 고상한 정신도덕정풍을 지니고 혁명적으로 문명하게 생활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일흔돌이 되는 올해에 인민군대는 혁명적당군으로서의 변모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어야 하며 전투훈련을 실천한경에 적군에게 강도높이 조직진행하여 모든 군종, 병종, 전동병부대들을 일당백의 전투대로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인민내무군은 계급투쟁의 날을 예리하게 세우고 불순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제때에 적발분쇄하며 로동적위군, 붉은청년군위대는 전투정지훈련을 힘있게 벌려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제8차 군수공업대회에서 당이 제시한 전략적방위대로 병전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주고 우리 식의 위력한 전략무기들과 무장장비들을 개발생산하며 군수공업의 주체적인 생산구조를 완비하고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생산공정들을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핵무기연구부문과 로켓트공업부문에서는 이미 그 위력과 신뢰성이 확고히 담보된 핵탄두들과 탄도로켓들을 대량생산하여 실천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적들의 핵전쟁책동에 대처한 즉시적인 핵반격작전체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치사상적위력은 우리 국가의 체제국력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가는 위대한 추동력입니다.

우리앞에 나선 투쟁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전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굳게 단결

시키고 혁명적당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혁명과 건설사업전면에서 당의 전투력과 영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합니다.

모든 당조직들이 당의 사상과 어긋나는 온갖 잡사상과 이종규율을 절대로 리용하지 말고 당중앙위원회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일일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전당적으로 당세도와 판로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뿌리째 내버리고 모를 막고 혁명적당풍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당과 인민대중과의 혈연적연계를 만석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해당 부문, 단위들의 사업이 언제나 당의 사상과 의도,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정치지도를 강화하며 정치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상을 발동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전제 군대와 인민을 당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묶어세워 모두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당과 생산운명을 함께 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몸바쳐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 근로단체조직들과 정권기관들은 모든 사업을 일일단결을 강화하는데 지향시키고 부동시켜나가야 합니다.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기준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하며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고탕을 같이 하면서 인민들의 마음속고통과 생활상애로를 풀어 주어야 합니다. 모든것이 부족한 때일수록 동지들사이에, 이웃들사이에 서로 돕고 전심으로 위해주는 미풍이 높이 발달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오늘의 만리마대진군에서 영웅적조선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시켜야 합니다.

당, 근로단체조직들은 모든 근로자들이 애국주의물심장에 새기고 지력경쟁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만리마속도창조전에서 끊임없는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천리마의 대진군으로 세기적인 변혁을 이룩한 전세대들의 투쟁정신을 이어 누구나 시대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는 만리마선구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지들!
지난해에도 우리 인민은 민족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나라의 평화를 지키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역력강화를 막아보려고 감행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압박소동과 광란적인 전쟁도발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유례없이 악화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보다 엄중한 난관과 장애가 조성되었습니다.

남조선에서 분노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동적항쟁에 의하여 파쇼통치와 동족대결에 대대리던 보수 《정권》이 무너지고 집권세력이 바뀌었으니 북남관계에서 달라진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함으로써 정세를 험악한 경계에 몰아넣고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북남관계는 풀기 어려운 경색국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를 풀지 않고서는 나라의 통일은 고사하고 외세가 강요하는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습니다.

조선정 정세는 지금이야말로 북과 남이 과거에 없애지 말고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나갈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시대적요구를 외면한다면 어느 누구도 민족애에 멎었던 모습으로 나설수 없을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창건 일흔돌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울림피경기대회가 열리는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같이 의의있는 해입니다. 우리는 민족적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면적인 해로 빛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북남사이의 친애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부터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금처럼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는 속에서는 북과 남이 예정된 행사들을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없는것은 물론 서로 마주앉아 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수도, 통일을 향해 끝까지 나아갈수도 없습니다.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온 겨레의 운명과 이 땅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미국의 무모한 북침핵전쟁책동에 가담하여 정세격화를 부추길것이 아니라 긴장완화를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화답해나서야 합니다. 이 땅에 화염을 퍼우며 신성한 강토를 피로 물들일 외세와의 모든 핵전쟁연습을 그만두어야 하며 미국의 핵장비들과 침략무력을 끌어들이는 일체 행위들

을 견어치워야 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핵을 휘두르며 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해도 이제는 우리에게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있는 한 어찌지 못할것이며 북과 남이 마음만 먹으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긴장을 완화시켜나갈수 있습니다.

민족적화해와 통일을 지향해나가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여야 합니다.

북남관계개선은 당국만이 아니라 누구나 바라는 조미의 관심사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쳐 풀어나가야 할 중대사입니다. 북과 남사이의 접촉과 래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하여 서로의 이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정적으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래왕의 길을 열어놓을것입니다.

상대방을 자극하면서 동족간의 불화와 반목을 격화시키는 행위를 결성적으로 종식되어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지난 보수 《정권》시기와 다름없이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장치를 내세워 각계각층 인민들의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고 편부통일기운을 억누르듯이 아니라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북남관계를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과 남의 당국이 그 어느때보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시대와 민족애에 지닌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합니다.

북남관계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내부문제이며 북과 남이 주인이 되어 해결하여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입장과 판점을 가져야 합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끌고다니며 청탁하여야 할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게 간섭의 구실을 주고 문제해결에 부작성한 조성한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 입장이나 밥힐 때가 아니며 북과 남이 마주앉아 우리 민족끼리 북남관계개선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출로를 과감하게 열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울림피경기대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며 우리는 대회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전심으로 바랍시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당국이 시급히 만날수도 있을것입니다. 한교를 나눈 겨레로서 동족의 경사를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와주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반동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써나갈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에 해내외의 전제 조선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새해인사를 보내면서 의의깊은 올해에 북과 남에서 모든 일이 잘되기를 전심으로 바랍시다.

동지들!
지난해 국제정세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인류에게 참화를 불러오려는 세력주도세력들과는 오직 정리의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우리 당과 국가의 전략적판단과 결단이 천만민을 출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였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책임있는 핵강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것이며 그 어떤 나라나 지역도 핵으로 위협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나갈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친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갈것이며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동지들!
2018년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승리의 해로 될것입니다.

새해의 장엄한 진군길이 시작되는 이 시각 인민의 지지를 받고있기에 우리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라는 확신으로 나는 마음이 든든하며 전력을 다하여 인민의 기대에 기여이 보답할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됩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인민의 믿음과 힘에 의거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투쟁과 전진을 멈추지 않을것이며 전제 인민이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사회주의강국의 미래를 반드시 앞당겨올것입니다.

모두다 조선로동당의 평도따라 영웅조선의 강웅한 기상을 떨치며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색조각상을 조선혁명박물관에 정중히 모시였다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의식 진행



우리 혁명의 성스러운 력사가 집대성되어 있는 조선혁명박물관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색조각상을 높이 모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색조각상을 정중히 모시므로써 조선혁명박물관은 명실공히 우리 수령님의 혁명박물관, 우리 장군님의 혁명박물관으로 세세대대 영원히 빛을 뿌리게 되였으며 태양조선의 대국보관으로서의 품격을 더욱 완벽하게 갖추게 되였다.

조선혁명박물관 총서관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색조각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는 의식이 12월 31일에 진행되였다.

양형섭동지, 김정해동지, 최희동지, 김수길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조선혁명박물관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로 사회주의강국건설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으며 불면불욕의 애국헌신으로 부강조국건설의 만년토대를 억척같이 다져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생애를 가슴 뜨겁게 되새기며 참가자들은 총서관에 불어섰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색조각상앞에는 조선인민군 복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색조각상을 우리

조선인민군 복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 명예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색조각상에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색조각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흰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덩어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모셔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이민위원을 환영의 최우명

으로 삼으시고 조국의 부강민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철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정모의 정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색조각상을 우리더 삼가 인사할 드렸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정해동지가 발언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색조각상을 조선혁명박물관 총서관에 정중히 모신 오늘에 경사는 수령생애의 새로운 장을 펼쳐가시며 조선혁명박물관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박물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박물관으로 더욱 훌륭히 꾸려주시려고 사색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정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명도의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오늘의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우리

혁명에 밝은 알남을 축복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는데 백옥같은 충정을 바쳐나갈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조선혁명박물관을 통한 위대성교양, 혁명전통교양을 힘있게 펼쳐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깊이 체득하고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철저히 준비해나갈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정애하는 최고명도자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위업,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세로운 영상을 경건히 우러르는 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일당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갈 굳은 의지가 어려있었다.

이어 참가자들은 조선혁명박물관의 여러 관들을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애국헌신, 장군님헌을 눈부신 현실로 펼쳐가시는 정애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명도따라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이 땅위에 세계가 우리더보는 사회주의강대국을 만드시 일떠세우고야말 혁명적의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일본 도쿄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허종만 동지 앞

나는 조국역사에 특기할 만한 사면들로 아로새겨진 2017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 2018년을 맞이하면서 의장동지를 비롯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 총련은 일본인들의 악랄한 탄압책동수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혼모의 마음을 안고 온 한해를 애국애족의 날과 달로 긍지높이 수놓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바람세찬 이익쟁에서 중첩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꿰뚫어 주재위원, 총련에국위원의 승리를 위하여 변함없이 역세에 싸워나가고있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고결한 충정과 애국적공헌을 높이 평가합니다.

새해 2018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해이며 총련 제24차 전체대회를 계기로 재일조선인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할 일대 전군의 해입니다.

나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뜻깊은 올해에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인 총련의 본래를 다시금 세계만방에 힘있게 과시하고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심스러운 행로에 반드시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려라고 굳게 믿습니다.

나는 언제나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의 제비가 뜨겁게 스며있는 우리 총련을 주재조선의 귀중한 제부로 소중히 간직하고 총련의 강화발전과 재일동포들의 행복찬 삶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입니다.

희망찬 새해에 최충만의장동지를 비롯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건강과 우리 동포모두의 가정들에 더 큰 행복과 웃음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주제107(2018)년 1월 1일

평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국대군의 주사 야. 페. 노비첸코가족,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만수대업에 높이 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주제 107(2018)년 새해에 즈음하여 국제주의전사 야. 페. 노비첸코가족,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인 정일심봉포가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보셔져 있었다. 한편 이날 절세위인들의 동상에 앙골라 의 룬다 노르메주경찰사령부병정 원장이 보내어온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민족의 태양이 시며 조국통일의 위대한 령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행성을 진감하는 흑대사면, 대기적들의 편속적, 다발적판공과 더불어 주제조국의 존엄과 위상이 단란데공으로 치솟은 격동의 2017년이 저물고 보다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예고하며 새해 주제 107(2018)년의 첫아침이 밝았습니다. 조총의 산 백두대령에서 시작된 찬란한 해돋이가 남북산림리를 뚫은 제운으로 가득 물들이는 환희로운 이 시각 만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태양을 우리에 따르는 남녘겨레의 열화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2017년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특출한 령도아래 공화국의 존엄과 무진막강한 국력, 강용한 기상이 최상의 경지에서 파시되고 주제조국의 전략적지위와 강대국민법에 확고히 올라 국제정치흐름을 주도하는 선진지반이 일어난 세계사적전환의 해, 위대한 승리의 해였습니다.

새해의 첫아침 신년사에서 주제조국의 위창한 청사진을 제시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주의 기치, 병진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리고 만민대결전과 주제강권선진대전의 최전두에서 사시어 력사의 행로를 전진적인 사면들과 영웅적인 신화들로 아로새겨주시었습니다.

미치 백두산이 노호하며 지심깊이에서 활화산을 연속 뿜어올린듯 시련의 두마루 열염장을 병병 불부시며 《3. 18혁명》과 《7. 4혁명》, 7. 28의 기적적승리에 이어 대륙간관도르케트장학용 수수안의 장벽한 폭음이 울리니 마침내 국가력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원의 실현을 선언하며 《11월대사면》의 통장소리가 천지를 진감하였습니다.

지금 온 민족과 세계는 무변불태한 유무로 높이 솟구쳐오른 대륙간관도르케트 《화성-15》형은 세계의 최정상에 올라선 공화국의 역전 기상이고 그 자리깊은 이 세상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자주의 불변제도이며 그 속도는 백두의 칼바람에 못을 달고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하여 질풍노도는 주제조국의 태비 약속도이려고 직한을 굽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 남녘겨레는 《유일초대국》이라고 오시는데 악의 제국 미국을 한순에 거머쥐고 위락파라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진적위상을 우리들면서 미국의 미치쟁이들이 조선민족의 절멸을 떠들며 세아무리 핵전쟁의 불구름을 풍어와도 민족의 자랑인 북의 핵보검이 있는 한 이 땅의 평화를 맺을 없고 아메리카의 종말은 시간문제일뿐이라는 확언에 넘쳐있습니다. 정녕 그 존엄한 불어도 세국주의대무리들이 벌벌 떠는 행성의 유일한 정의의 수호자, 절대강자이신 김정은원수님은 남과 북의 온 겨레가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맡기고 영천도록 따를 민족의 주재주, 만고절세의 대영웅이십니다.

승리의 만세소리 높은 곳에 행복의 노래소리 넘쳐흐르기 마련입니다. 지난해 북에서는 민족제일주의, 민족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으로 가슴 불태우시며 초강도강행군길을 취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의 손길이라 애민의 회원이 더 활짝 꽃피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헌신의 자욱을 따라 새해 정초부터 거창복로, 이불복로, 신발복포가 쏟아지고 수수원년 버림받던 불복의 땅에 골지의 대규모축신기지가 일어섰으며 도처에 현대화된 민중생활향상기지와 지역경제공방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사회주의만세소리, 로동만세소리가 온 나라 방방곡곡에 울려져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제재압박소동을 비롯하여 려명거리가 길경신시대 민중사망의 대거넘비로 하늘높이 치솟았고 자력자의 무의필미불린 세명의 자물자, 프락트브로를이 원수들의 압살 망상을 벽은 울바자처럼 들부시며 경제강국건설의 주라적전방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제107(2018)년 1월 1일

서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구바공화국 내각 수상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아바나

구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구바공화국 내각 수상

라울 까스트로 루쓰동지

나는 구바혁명승리 59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전체 구바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동지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변함없이 공고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이 건강할것과 아울러 구바당과 정부, 인민을 영도하는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衷心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주제106(2017)년 12월 31일

평양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당 지도자들, 각계 인사들이 축하장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제 107(2018)년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당지도자들, 각계 인사들이 축하장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로씨야연방 대통령,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부르르네시안 대통령, 헬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이 축하장을 보내어왔다. 또한 헬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정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공화국영웅 안동수유가족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가족인 정일심봉포가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동상에》라는 글씨가 보셔져 있었다. 한편 이날 절세위인들의 동상에 앙골라 의 룬다 노르메주경찰사령부병정 원장이 보내어온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주체조선의 승리의 상징이시고 운명이시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돐을 맞는 민족적대경사의 해 주제 107(2018)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재일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는 새해를 이어나 만민대결전에서 위대한 승리가 이룩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눈부신 비약과 양상이 일어나게 될 주제 107(2018)년을 맞이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혼모와 총련의 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크나큰 희망과 보루를 안고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세적인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한 일심단결의 대진군, 자력갱생의 전진군을 힘차게 다그치며 우리 조국이 나라의 종합적국력과 전략적지위를 절정에 올려세운 지난해를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불과 한해사이 《3. 18혁명》과 《7. 4혁명》, 7. 28의 기적적승리, 대륙간관도르케트장학용 수수안시점성공에 이어 대륙간관도르케트 《화성-15》형발사시험의 완전성공으로 《11월대사면》을 안아오시으로써 우리 나라 국가력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 로케트강국위원을 빛내 실현하시었으니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인 우리의 열애와 긍지는 하늘을 찌를듯 높습니다.

조국침사에 특기할 대승리앞에서 우리들은 비범한 예지와 현세적인 지략, 강령의 신념과 무비의 배양, 사생경단의 의지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위상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위대한 강국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출을 온넉과 제부로 뜨겁게 절감하였습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핵전쟁소동과 사상적악의 제재책동수에서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동력으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조국과 인민들의 찬란한 미래를 개척하시는 천하제일의 위인이십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난해에도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주신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다 때풀어주시며 우리들을 절음결을 손잡아 이끌어주시었습니다.

반미전면대결전을 전두에서 령도하시는 그로록 분방하신 속에서도 재일조선인민주성맹정성 70돐기념 중앙대회앞으로 강령적인 축전을 보내주시고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배려해주셨으며 조선대학교 리사장에 공화국 로력영웅호를 안겨주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은훈은 이국의 모진 칼바람을 이겨내는 필승의 보검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공화국 축구선수단을 일본에 보내시어 우리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시었음뿐 아니라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선수단을 뜨겁게 맞이하여 환영과 응원, 물질방면의 지원을 다하여 너자축구선수단의 우승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흔히 감사까지 보내주시었으니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 더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날아갈것만 같습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하신 뜻 그대로 이어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자애로운 한복에 안아 원어머이사람으로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는 전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제107(2018)년 1월 1일

일본 도쿄

2018년 신년 경축 공연 《조선의 모습》 진행

자주의 기치, 자강력제일주의 기치드높이
 입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록봉노도지는 주제조선의
 위대한 승리의 려정에 희망찬 새해 주제
 107(2018)년이 밝아왔다.

력사에 류해없는 대경사, 대승리로 빛나
 는 지난해는 당의 위엄에 무한히 충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이 당중앙과 사상도 뜻도의
 지도 하나가 되어 원수들의 사상외곽의 압
 살공포를 단호히 쳐감기며 국가력무력완성의
 역사적대업을 실현하고 자주와 정의의
 기치, 세계평화의 수호자인 사회주의조선의
 강용한 모습을 만민하여 파시한 위대한 기
 적의 한해였다.

은 나라 천만군민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가 제시한 웅대한 목표를 향한 만리마태
 진군길에 인민의 운명을 간직한 주제의 불
 은 당기를 백성의 기치로 펼칠 휘날리시며
 주제조선의 천만년미래를 담보하는 최강의
 힘을 마련해주시고 최후승리의 대로를 열
 어주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뜨거운 총정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
 있다.

주제혁명사에 일찍이 없었던 강성민영의
 새 역사를 창조한 눈부신 성과를 안고 희망
 찬 새해를 맞이한 천만군민의 격정과 환희
 가 끝없이 분출되는 속에 2018년 신년경
 축공연 《조선의 모습》이 혁명의 수도 평
 양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
 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
 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
 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박봉주동지와 당과 국가의 책임인민들인
 양형섭동지, 김평태동지, 태종수동지, 안경
 수동지, 조두철동지, 리용호동지, 최희동
 지, 박태덕동지, 김수길동지, 노광철동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영
 태동지, 내각, 성, 중앙기관 일꾼들, 만경대
 혁명학원과 강안석혁명학원 교직원, 학생
 들, 평양시인의 일꾼, 과학자, 기술자, 로력
 혁신자,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하
 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

무관들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과 사회주의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초대되
 었다.

주제음악예술의 위력을 과시하며 우렁
 찬 음악포성으로 자력자강의 만리마태진
 군을 힘있게 추동해온 공훈국가합창단과
 모란봉악단의 예술인들은 만만민족사
 에 가장 영광찬란한 시대를 펼쳐 위대한
 강국의 노래, 우리 식 사회주의찬가를 울
 림의 창조형상하여 신년경축무대에 펼쳐
 놓았다.

사곡 《설날아 내려라》의 환희로운 음
 악세계로 첫 무대를 장식한 출연자들은 일
 화시와 노래 《인생의 영광》, 경음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녀성독창 《내 심장의
 목소리》, 녀성중창 《사회주의전진가》,
 가무 《행복의 배일》 등에서 주제조선의
 강대성과 불가항력적위력으로 세계를 격동
 시킨 대승리의 해, 기적의 위대한 한해를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백년백승 조선로동당이 펼친 강성민영의
 설계도마라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하여 활력
 있게 전진해가는 입심단결의 대진군, 자력

강성의 총진군길에서 자주와 정의의 무진
 막강한 힘, 강대국의 존엄과 강용한 기상을
 만민에 펼쳐 승리자들의 노래는 장내를 진
 감시켰다.

관람자들은 우리 당을 운명의 동태로
 믿고 따르며 전태미문의 시련속에서도
 위대한 어머니당과 함께 모든 영광을 맞이
 한 잊을수 없는 2017년의 나날들을 금지
 높이 추억하였다.

조국정사에 특기할 대사변과 대변혁들
 로 자랑찬 주제혁명의 성스러운 길에
 승리와 영광의 기치로 빛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천만심장이 리
 처울린 시대의 송가 《인민은 부르네
 천군한 그 이름》, 《당이며 그대 있기에》
 가 관람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리
 였다.

백두의 신념과 의지로 백사의 광풍을 쳐
 갈기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영웅신화를 창조
 하시고 우리 민족제일주의, 우리 국가제일
 주의를 눈부신 실적으로 구현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환하신 영상이
 무대배경에 모시지자 열광적인 박수가

리저로운 장내는 격정의 대하로 끝없이 설
 례이었다.

공연은 어머니당이 온 한해 인민을 위한
 필사복무의 정신으로 꽃피은 사회주의선경
 들을 노래한 혼성중창과 남성합창 《바다
 만용가》, 《버가울하러 갈 때》, 《황금산
 라명》, 녀성중창과 남성합창 《우리는 내
 나라》로 더욱 고조되었다.

우리 식 사회주의의 진면모인 황금산,
 황금밭, 황금해와 더불어 태어난 로동당
 시대의 명곡들은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인민의 행복, 인민의 웃음소리가 차넘치
 는 강국의 모습, 천하제일의 절경을 세계
 주었다.

백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기적의 시대
 를 열고 인민의 천만소원을 꽃피워주는 위
 대한 손길아에 새기를 주름잡으며 최상의
 문명을 보낸듯이 창조해가는 인민의 금지
 와 자부심이 넘쳐나는 속에 관현악 《세계
 명곡유음》도 올라 공연무대를 이채롭게 하
 였다.

공연은 주제조선의 강대한 힘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두리에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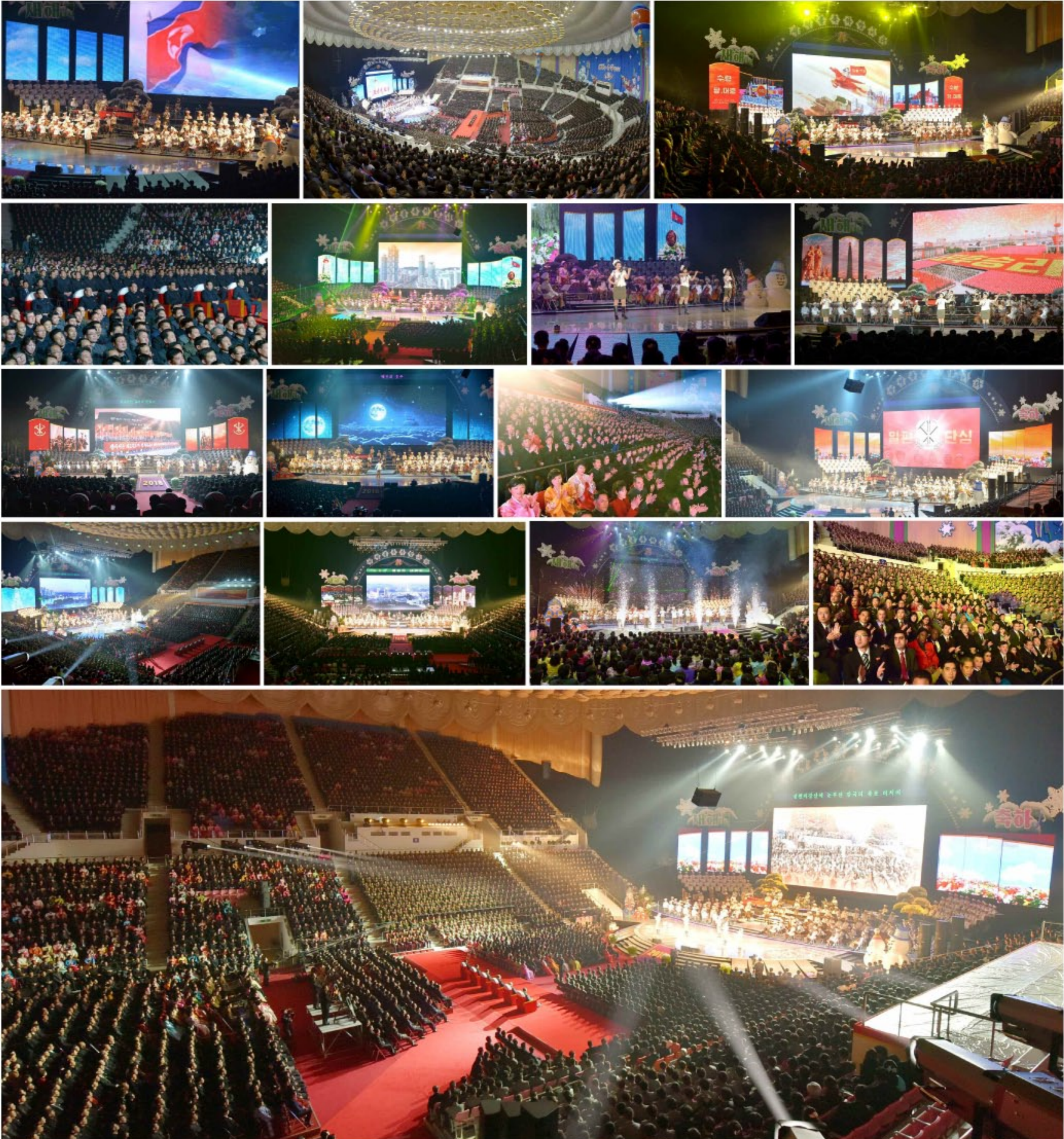
욱 굳게 품쳐 계속혁명의 한길, 사회주
 의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해갈 천만군민
 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억척불변의 신념
 이 분출된 녀성중창 《천리라도 만리라도》,
 남성합창 《조선의 모습》으로 절
 정을 이루었다.

위대한 태양의 축복속에 천만년 무궁만
 영할 사회주의강국의 휘황한 미래를 환희
 로운 음악세계로 펼쳐보인 공연은 종국
 《설날아 내려라》로 끝났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드높이
 주제조선의 국력과 발전잠재력을 총괄시
 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
 한 총진군에서 보다 큰 승리와 비약을 이
 록해나갈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
 를 백배배준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질찬을
 받았다.

2018년 신년경축공연은 위대한 당의
 명도마라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하여 활력
 있게 전진해가는 천만군민의 대진군을 힘차게
 추동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조선의 광휘로운 미래를 축복하는 환희의 불보라

희망찬 새해에 즈음하여 수도 평양에서 축포 발사

주체혁명의 성스러운 진군길에 승리와 영광의 자욱을 아로새기며 각공의 남과 말을 이어온 주체108(2017)년을 보낸 은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끝없는 환희와 평만에 넘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였다.

위대한 당의 영도아래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더욱 찬란한 현실로 펼쳐질 주체 107(2018)년을 맞으며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축포발사가 있었다.

2017년 12월 31일 밤 집일성광장과 주체사상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방안에는 강성번영할 내 조국의 평명한 미래를 축복하는 경축의 불보라를 보기 위해 모여온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의 물결이 끊이지 않았다.

위대한 당중앙이 카리키는 한

길을 따라 자주의 기치, 자강력 제일주의기치드높이 사회주의 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단방에 펼쳐온 추억깊은 한해를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군중들은 축포가 미저오를 환희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새해 1월 1일 0시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병도자》의 노래 선율과 함께 특수효과단들이 《새해를 축하합니다》라는 글자를 아로새기는 속에 눈부신 불의 화폭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앞길을 밝혀주고 당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는 한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주체조선의 하늘가에 미저오르는 병풍한 불꽃들, 기기보보한 축포들을 바라보며 군중들은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사회주의의 승리봉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온 지난 한해를 긍지높이 돌이켜보았다.

천감해, 만감해의 시련이 중증첩첩 가로놓인 려무기병기화의 길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우리 조국을 불패의 령국,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워주시고 조국방위항복곡에 열렬한 조국애와 찬없는 인민사랑의 새겨진 열지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2월의 하늘가에 울려 퍼진 지상대지상장거리전략탄도단 《북극성-2》형의 장엄한 불취성에 이어 다발적으로, 면발적으로 일어난 《3.18혁명》, 《7.4혁명》과 7.28의 기적

적승리, 《9월의 열핵폭풍》, 력사적인 《11월대사변》에는 조국의 천만년미래와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쳐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애국헌신의 심혈과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 있었다.

탄원하고 세련된 병도로 강국의 새시대를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드리는 천만군민의 최대의 영광과 고마움의 인사를 담아 꽃다발형의 축포들이 오색 환연한 빛을 뿌리었다.

새해의 아침 평양가방공장에 병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그날로부터 대교조격전장들을 위임 없이 찾고찾으시며 불철주야의 강행군을 이어가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손길아래 이 땅우에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전변의 력사가 펼쳐졌다.

사회주의승리의 령명을 알리며 용장되려하게 솟아난 령명거리, 조국력사에 특기할 듯 하나 축산기지와 류경김치공장, 금산조각감가공공장 등 금산로수산사업소, 평양버섯공장 등 사회주의민복의 창조물들이 이 땅의 곳곳에 수놓여져 일며었다.

지역경쟁, 간교분투의 투쟁정신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양양이 일어나고 우리 로동계급의 열화같은 애국충정과 백철불굴의 혁명정신, 류정본배가 남은 《천리마-804》호프로드트, 《승리》호 화물자동차, 《총성-122》호프로드트들이 기운찬 동음을 울리며 대교조격투장들로 진출하였다.

세인을 경탄시키며 기적을 펼쳐온 지난 한해는 천만의 심정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어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심을 백배배준 잊지 못할 나날이었다.

이 땅우에 위대한 태양의 령사가 세세년년 흐르도록 하여 주시고 철새 위인들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활짝 꽃피우시며 바쳐오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로고와 헌신을 되새기며 군중들은 작렬하는 불꽃들을 격정속에 바라보았다.

대지를 맑게 비치며 다양한 모형을 수놓는 전주알같은 불꽃들, 금비로 또는 서로 교차한 이 무수한 줄축포들은 명철의 불위기를 고조시키며 군중들을 환희의 세계로 이끌었다.

밤하늘가에 펼쳐진 꽃구름을 바라보며 고무동선들 삼고 돌아

라 뛰노는 아이들, 형형색색의 경축의 불보라들을 간직하려는 듯 사진을 찍는 청춘남녀들을 비롯한 군중들...

위대한 당, 강용한 인민의 불굴의 기계인양 축포들이 끝없이 미저오르며 수도의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지식을 위흔드는 장엄한 축포성과 친변만화하는 불의 화폭은 공화국장전 70회를 맞이하는 승리의 9월을 향한 대교조격군길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전주마다에서 대미약, 대헌신을 일으켜나갈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가슴가슴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주체조선의 역력 기상을 안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내달리는 인민의 의지를 담아 각양각색의 고무동선들이 치달아오르

는 가운데 《희망넘긴 나의 조국아》, 《하나의 대가정》 등의 노래선율이 울려 퍼졌다.

새해를 맞으며 수도의 하늘가에 미저오른 경축의 불보라는 당중앙위원회와 프락에 온명의 퍼즐을 잇고 일전단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사상도 승경도 말걸음도 같이하며 조국의 부강인영을 위하여 역세게 싸워나갈 천만군민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영도 아래 지역자강의 기치높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 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총동력, 총매진함으로써 뜻깊은 새해 2018년을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로 빛내어갈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수도의 거리들에 펼쳐진 아름다운 불야경

볼수록 황홀하다. 어찌 보면 한겨울에 피어난 서리꽃인듯 또 어찌 보면 민족사적인 특대사건들을 경축하여 수도의 하늘가에 미저오르던 축포의 불보라들이 그대로 땅우에 내뿜어온듯, 이처럼 펼쳐진 불야경이 수도의 거리들을 아름답

게 단장하였다. 화려한 불꽃비데 물줄 잠고 수도의 반거리들 기쁨과 환희에 넘쳐 걷어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피어난 행복의 웃음꽃이 조화

를 이루어 때때로 유정하게 안겨오는 수도의 밤풍경, 불야경이다. 위대한 당을 따라 신심드높이 걸은 가슴벅찬 나날들과 앞으로 이룩해갈 더 큰 승리가 저 불

의 화폭속에 선명히 그려져있다. 지역경쟁의 기치높이 현우들의 악랄한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우며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의 별마루에 우뚝 올라선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불빛제너룸의 빛을 자랑하라 하라. 우리는 우리의 불빛을 세일 사랑한다. 우리의 사상과 의지,

과 환희에 한껏 휘하고싶다. 무수한 불빛이 지구를 밝히며 제너룸의 빛을 자랑하라 하라. 우리는 우리의 불빛을 세일 사랑한다. 우리의 사상과 의지,

우리의 빛과 미래, 우리의 멋과 지향이 비친 저 불빛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자랑한다. 더 밝고 아름답게 빛나라 평양의 밤이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뜻도 마음도 승경도 하나가 되어 최후승리의 아침을 마중가는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담아내고 행복의 불빛, 희망의 불빛이여 뜨겁게 흐르라. 글 본사기자 조 경 철 사진 본사기자 김 종 철



